

Handball KOREA

핸드볼코리아

2022년 9·10월 제60호

U-18 ASIA CHAMPIONS

Z세대의 유쾌한 반란
U-18남자핸드볼도 8년 만에 아시아 정상

SPECIAL

외국인 사령탑, 드디어 데뷔 무대
한일 국가대표 정기전 리뷰

HANDBALL 100°C

14개 팀, 총성 없는 전쟁 시작
오프시즌 어떻게 보냈을까

COVER STAR

‘슈퍼땅콩’ 김민서가 들려준
세계무대 정복 비하인드 스토리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HANDBALL
KOREA



변화된 세상의 중심에 SK하이닉스의 첨단 반도체가 있습니다

생활 속 IT기술, 비대면 서비스, 첨단 인공지능까지
언택트 시대에도 그 중심엔 첨단 반도체가 있습니다

We Do Technology
첨단기술의 중심, 더 나은 세상을 만듭니다



Handball

핸드볼코리아 KOREA

C O N T E N T S

2022년 9·10월 제60호



02 U-18 ASIA CHAMPIONS

Z세대의 유쾌한 반란
U-18 남자핸드볼도 8년 만에 아시아 정상

06 SPECIAL

외국인 사령탑, 드디어 데뷔 무대
한일 국가대표 경기전 리뷰

10 SPECIAL

첫 술에 배부를 순 없었다
외국인 감독의 남녀 대표팀, 뭐가 달라졌을까

14 COVER STAR

‘슈퍼땅콩’ 김민서가 들려준
세계무대 정복 비하인드 스토리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20 HANDBALL 100°C

14개 팀, 총성 없는 전쟁 시작
오프시즌 어떻게 보냈을까

24 DRAFT PREVIEW

새 시즌 핸드볼리그를 빛낼
신인 최대어 BIG 3는 누구?

26 BEACH HANDBALL

양양 낙산해수욕장이 핸드볼로 달아올랐다
2022 코리아 비치핸드볼 페스티벌

30 CLUB

“핸드볼, 제대로 즐겨볼까요?”
KHF핸드볼클럽이 꿈꾸는 밝은 미래

34 NEWS & READERS COMMENTS

핸드볼 뉴스 및 독자의견

제작협찬



발행일 2022년 10월 15일 | 통권 60호 | 정보간행물 등록번호 송파 다 00018 발행인 및 편집인 안지환
기획 윤준현 편집 (주)제이앤제이미디어 발행처 (사)대한핸드볼협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SK핸드볼경기장 3층
TEL 02-6200-1414 FAX 02-420-5337 E-mail handball_pr@sports.or.kr Homepage www.handballkorea.com



Z세대의 유쾌한 반란

U-18 남자핸드볼도 8년 만에 아시아 정상

한국 남자 핸드볼 청소년 대표팀이 8년 만에 아시아 정상에 우뚝 섰다. 한국 남자 18세 이하 대표팀은 9월 1일(한국시간) 바레인 마나마에서 끝난 2022 아시아청소년선수권 결승전에서 이란을 26-22로 꺾고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2005년과 2014년 대회에 이어 통산 세 번째 우승이다. 센터백 최지환(삼척고)이 대회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됐고, 골키퍼 김현민(남한고)은 결승전 MVP와 대회 베스트7에 뽑혔다. 대표팀을 이끈 장인익 감독은 “8년 만의 우승이라 정말 기쁘다. 선수들이 7월 말부터 40일 넘게 합숙하며 훈련한 게 큰 도움이 된 것 같다”며 “그동안 고된 훈련을 하느라 힘들었던 선수들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고 싶다”고 말했다.

글. 배영은 중앙일보 기자

준결승 한일전 승리가 고비

한국 핸드볼이 기다리던 희소식이다. 남자 대표팀은 최근 수년 간 아시아 대회에서도 상위권에 들지 못했다. 바레인, 카타르,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국가들의 성장세에 밀려 번번이 기대 이하의 성적을 냈다. 올해 역시 성인 대표팀이 지난 1월 아시아선수권에서 5위에 머물렀고, 20세 이하 대표팀도 7월 열린 아시아선수권을 5위로 끝냈다.

고교생으로 구성된 18세 이하 대표팀은 달랐다. 예선 리그부터 파죽지세였다. 이란, 바레인, 인도, 우즈베키스탄과 함께 A조에 편성된 한국은 예선 4경기를 모두 손쉽게 승리로 이끌었다. 첫 경기였던 8월 21일 이란전(29-24)에서 5점 차 승리를 거두면서 기분 좋은 스타트

를 끊었다. 23일 두 번째 경기에서는 개최국이자 2016년과 2018년 이 대회 우승팀인 바레인을 39-22로 꺾었다. 강륜현(청주공고)과 손민기(천안신당고), 김현민(남한고-골키퍼 김현민과 동명인인)이 나란히 7골씩 터뜨려 17골 차 대승을 이끌었다. 골키퍼 김현민도 방어율 56.3%를 기록하며 선방했다.

한국은 여세를 몰아 24일 인도를 56-23으로 대파했다. 이권영(고대부고)이 혼자 14골을 넣었고, 임호(천안신당고)도 10골을 보탤었다. 또 다른 골키퍼 강수빈(고대부고) 역시 방어율 42%로 골문을 잘 지켰다. 25일 우즈베키스탄전도 한국의 39-21 완승으로 끝났다. 이승용(남한고)이 9골을 넣는 등 필드 플레이어 전원이 득점했다. 조 1위로 4강 진출을 확정지은 한국은 이 대회 상위 5개국에 주는 2023 19세 이하 세계청소년선수권 출전권을 손에 넣었다.

한국은 8월 29일 열린 준결승에서 속직 일본과 만났다. 감독과 선수

가 모두 최대 고비로 꼽은 경기다. 초반부터 접전을 펼치던 한국은 전반 종료 직전 전현우(청주공고)의 득점으로 11-9 리드를 잡는 데 성공했다. 이어 22-20으로 앞서던 경기 종료 3분여를 남기고 김현민의 득점으로 3골 차를 만들어 승기를 잡았다. 최종 스코어는 23-21. 우승으로 향하는 8부 능선을 넘은 셈이다. 손민기가 5골을 넣으며 맹활약했고, 김현민과 강륜현이 4골씩 터뜨리며 공격을 이끌었다. 골키퍼 김현민은 방어율 38%를 기록하면서 경기 MVP에 선정됐다.

경기 후 장 감독은 “한일전이 가장 힘들었다. 선수들이 심리적 압박을 잘 이겨내서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대회 MVP 최지환은 “4강전인 데다 한일전이어서 무게감이 상당히 컸다”며 “일본 선수들이 잘해서 솔직히 힘들었지만, 모두 잘해냈다. 당연히 이겨야 할 경기를 이겼다고 생각한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골키퍼 김현민 역시 “그동안 말로만 듣던 한일전을 직접 뛰러니 부담감이 있었고, 상대가 잘하기도 했다. 일본과 4강전이 가장 힘들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란을 꺾고 정상에 오르다

결승전은 사우디아라비아를 꺾고 올라온 이란과의 리턴 매치였다. 조별리그에서 이란을 제압했던 한국은 결승에서도 그물망 같은 수비와 한 수 위의 스피드를 앞세워 초반부터 경기 흐름을 주도했다. 4-4로 맞선 전반 13분 골키퍼 강수빈의 선방에 이어 손민기와 최지환이 연속 득점을 올리면서 6-4로 2점 차 리드를 잡았다. 전반 16분에는 이호현(전북제일고)과 김현민의 득점이 이어지면서 리드를 3점 차로 벌렸다. 강수빈도 이란의 까다로운 수비를 계속 선방하며 힘을 보탤다. 한국은 전반 21분께 이란의 연속 득점을 허용하면서 1점 차로 추격 당했지만, 최지환과 김현민이 다시 연속 득점으로 응수하면서 전반을 14-11로 마쳤다.

한국은 후반 시작 1분 만에 손민기가 만들어낸 7m 드로를 강륜현이 득점으로 연결하면서 전반의 기세를 이어갔다. 또 후반부터 골문을 책임진 김현민이 후반 5분께 단독 상황에서 좋은 선방을 해내 사기를 끌어 올렸다. 후반 9분에도 강륜현이 잇따른 7m 드로를 계속 성공시키면서 18-13까지 달아났다.

계속 이란을 몰아붙인 한국은 후반 12분 집중 공격으로 7점 리드를 잡으면서 사실상 승기를 쥐었다. 김현민의 선방, 강륜현의 득점, 김재권(전북제일고)의 스틸에 이은 득점이 이어져 21-14까지 스코어가 벌어졌다. 경기 종료 9분을 남기고 22-18까지 추격을 허용하기도 했지만, 이호현이 다시 3연속 득점에 성공하면서 다시 25-18을 만들었다. 한국은 이후 5분간 별다른 위기 없이 경기를 마쳐 6전 전승으로 완벽한 우승을 일궈냈다.

최지환은 “탄탄한 수비가 우승 비결인 것 같다. 1대 1 속공으로 빠르게 경기를 풀어간 게 주효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결승전 MVP가



된 골키퍼 김현민도 “우리는 수비와 속공으로 단단해진 팀”이라며 “동료 선수들과 오랫동안 열심히 한 끝에 아시아에서 가장 잘 하는 팀으로 인정 받아서 정말 기쁘다”고 했다.

국제 경쟁력 회복할까

한동안 침체를 겪었던 한국 핸드볼은 최근 남녀 고교생 선수들의 활약 속에 국제 경쟁력 회복의 희망을 키우는 모양새다. 앞서 여자 18세 이하 대표팀이 8월 11일 세계청소년선수권에서 비유럽 국가 사상 최초로 우승하면서 '리틀 우생순(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신화의 디딤돌을 놓았다. 여자 핸드볼 역시 2014년 20세 이하 세계주니어선수권에서 우승한 뒤 국제대회에서 이렇다 할 성적을 내지 못하고 오랜 침체를 겪었다. 하지만 전원 고교생으로 구성된 선수들이 유럽의 강호들을 상대로 8전 전승을 거두면서 재도약을 바라볼 수 있게 됐다.

그 후 20일 만에 남자 18세 이하 대표팀이 아시아청소년선수권에서 우승해 아시아 최강의 명예를 회복했다. 2014년 우승팀인 한국은 2016년 3위로 떨어지면서 자존심을 구긴 기억이 있다. 또 2018년 대회에선 조별리그 이라크전 도중 서로 더 수월한 상대와 준결승을 치르기 위해 ‘지는 경기’를 했다는 고의 패배 논란에 휩싸여 이라크와 함께 실격됐다. 하지만 2020년 대회가 코로나19 여파로 취소된 뒤 4년 만에 다시 나선 이번 대회에서 최고의 성적표를 들고 금의환향했다. 대한핸드볼협회는 현재 실업 리그로 운영 중인 핸드볼 코리아리그를 2023-2024시즌부터 프로 리그로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들 모두 ‘프로 핸드볼’의 주축이 될 선수들이라 더 미래가 밝다. 한국은 이제 카타르와 바레인(이상 2회 우승)을 밀어내고 아시아청소년선수권 최다 우승팀으로 기록됐다. 남자 18세 이하 대표팀은 내년 다시 소집돼 크로아티아에서 열리는 19세 이하 세계청소년선수권에 출전한다. 김현민은 “올해 ‘강(아시아)의 왕’이 됐으니 내년엔 ‘바다(세계)의 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야심찬 포부를 내놨다. 🌐



외국인 사령탑, 드디어 데뷔 무대 한일 국가대표 정기전 리뷰

핸드볼 한일 국가대표 정기전이 2019년 이후 3년 만에 다시 열렸다. 이번 한일 정기전은 올해 5월 한국 핸드볼 사상 최초로 외국인 국가대표 사령탑에 선임된 프레이터스 감독과 라스무센 감독의 첫 공식 경기이기도 했다. 한국 남녀 핸드볼은 어떤 성적표를 받았을까. 글. 김동찬 연합뉴스 기자



바뀐 대표팀의 첫 시험대 '속명의 한일전'

올해 한일 국가대표 정기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처음 재개되는 경기라는 의미가 있었지만 우리나라 남녀 성인 대표팀에 외국인 사령탑이 지휘봉을 잡은 이후 처음 열린 공식 경기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컸다.

2008년 창설된 한일 국가대표 정기전은 2019년을 마지막으로 개최됐고,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와 올림픽 개최 등의 이유로 대회가 열리지 못했다. 특히 이번 한일 정기전은 한국의 경우 외국인 사령탑의 부임, 일본은 최근 올라온 경기력 등이 맞물리며 두 나라 모두에 중요한 승부처가 됐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도쿄올림픽에서 여자 대표팀이 8강에는 올랐으나 유럽의 강국들과 현격한 기량 차를 드러내며 2008년 베이징 이후 올림픽 3회 연속 '노 메달'에 그쳤다. 한국 여자 핸드볼이 올림픽에서 3회 연속 메달을 따지 못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자 핸드볼이 올림픽 정식 종목이 된 1976년 몬트리올과 1980년 모스크바 대회에는 출전하지 못했고, 1984년 로스앤젤레스 대회 은메달부터 2008년 베이징 사이에는 2000년 시드니 4위가 유일한 '노 메달'이었다.

남자 대표팀은 2012년 런던 이후 2회 연속 올림픽 본선에 가지 못했다. 최근 카타르, 바레인,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세의 급성장으로

로 인해 아시아 관문을 통과하기도 쉽지 않아졌기 때문이다.

이런 흐름 속에 대한핸드볼협회는 사상 최초로 남녀 성인 대표팀에 모두 외국인 사령탑을 선임하기로 했고, 올해 5월 남자부에 홀란드 프레이터스(57·포르투갈), 여자부는 김 라스무센(50·덴마크) 감독을 선임했다. 국제 경쟁력 강화를 기치로 내건 남녀 대표팀 외국인 사령탑의 첫 데뷔 무대가 바로 이번 한일 정기전이었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외국인 감독을 선임한 바 있다. 일본은 자국에서 열리는 2020 도쿄올림픽을 대비해 2017년부터 다구르 시구르드손(아이슬란드), 울리크 커클리(덴마크) 감독을 남녀 대표팀 사령탑에 선임한 바 있다. 시구르드손 감독은 이번 한일 정기전에서도 일본 남자 대표팀을 이끌었고, 여자는 일본인 사령탑 구스모토 시게오 감독이 지휘봉을 잡았다.

일본은 도쿄올림픽에서 남자부 11위, 여자부 12위로 하위권에 머물렀지만 경기력 자체는 예전에 비해 좋아졌다는 평을 듣는다.

조직력 만들어가는 한국 핸드볼, 뒷심 보여줬다

올해 한일 정기전은 또 예년과 달리 한국과 일본을 오가는 홈 앤드 어웨이 방식으로 열렸다. 9월 4일 일본 나고야에서 1차전을 치르고, 9월 7일 인천에서 2차전이 열렸다. 결과는 남자부 1승 1패, 여자부는 한국의 2승으로 끝났다.



먼저 남자부는 두 팀이 1승씩을 나눠 가졌다. 일본에서 열린 1차전은 일본이 25-19로 이겼고, 한국 홈 경기로 진행된 2차전은 우리나라가 33-23으로 승리했다. 남자부 정기전 통산 전적은 10승 1무 2패로 한국이 우위를 보인다. 다만 2008년 첫 대회 이후 한국이 9승 1무로 압도하다가 2019년 도쿄 대회에서 27-35로 처음 패했고, 올해 1차전도 지면서 2연패를 당하는 등 일본의 성장세가 눈에 띈다.

우리나라는 일본에서 열린 1차전에서 전반까지 골키퍼 김동욱(두산)이 연달아 선방 쇼를 펼쳐 12-11로 앞섰으나 후반들어 갑자기 난조를 보인 끝에 역전패했다.

2차전은 반대 양상이었다. 일본이 1차전 승리 여세를 몰아 전반까지 13-12로 앞섰으나 우리나라가 후반 대반격에 나서 10골 차로 승부를 뒤집었다. 2차전 최우수선수는 골키퍼 김동욱이 선정됐다.

프레타스 감독은 골키퍼 코치로 여성 지도자인 바나 라디치(39-핀란드)를 선임했는데, 첫 공식 경기부터 골키퍼의 활약이 눈부셨다.

첫 승리를 따낸 뒤 프레타스 감독은 “한국 대표팀을 맡은 뒤 7, 8월 유럽 전지 훈련 때는 선수들의 장단점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이번 일본과 평가전은 우리에게 좋은 경험이 됐다”고 말했다. 승리를 축하한다는 인사에 “감사합니다라고 한국 말로 답한 프레타스 감독은 “2023년 1월 세계선수권에서는 결선 리그 진출이 목표”라며 “이후 아시안게임 등 중요한 대회를 앞두고 열심히 준비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여자 대표팀은 한국이 2승을 쓸어담았다. 일본 1차전을 25-19로 이긴 한국은 2차전에서도 23-19로 승리해 정기전 상대 전적 10승 2패 절대



우위를 이어갔다. 또 정기전에서 주니어 대표가 나갔던 2012년 이후 최근 8연승 행진을 이어갔다.

우리나라는 대표팀 핵심 전력인 류은희(헝가리 교리)가 빠졌지만 1차전에서 12골을 넣은 이미경(부산시설공단), 2차전은 이미경과 강경민(광주도시공사)이 나란히 7골씩 터뜨리며 실력의 우위를 입증했다.

데뷔 무대를 기분 좋은 2연승으로 장식한 라스무센 감독은 “2연승 결과는 좋지만 오늘 공격이 매끄럽지 못했다”며 “전체적으로 스피드와 에너지가 부족했다”고 자평했다. 그는 “7, 8월 유럽 전지훈련부터 계속 훈련을 이어와 다소 피로한 면도 있지만 변명이 될 수 없다”며 11월



국내에서 열리는 아시안선수권 선전을 다짐했다.

선수들이 느낀 외국인 사령탑 “디테일이 다르다”

국가대표 선수들도 외국인 지도자들의 데뷔 무대를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김동욱은 “외국인 감독님 스타일이 선수들을 많이 믿어주시고, 더 할 수 있게 북돋아 주는 편”이라며 “여자 골키퍼 코치님께 배우는 것은 처음인데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디테일하게 봐주셔서 기량 향상에 도

움이 된다”고 말했다.

지난 시즌에 일본리그에서 활약한 이미경 역시 “유럽 스타일이라 운동량은 적은 편이지만, 1시간 반 정도만 해도 3시간 이상의 효과를 보는 것 같다”고 외국인 감독 선임의 장점에 대해 말했다.

5월 외국인 감독 선임 이후, 7-8월에 남자부는 덴마크와 포르투갈, 여자부는 덴마크와 헝가리에서 유럽 전지훈련을 진행했다.

원래 올해 10월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두 외국인 감독에게 주어졌던 첫 번째 과제였으나 아시안게임이 코로나19 때문에 2023년으로 미뤄지면서 일정에 다소 여유가 생겼다.

여자 대표팀은 11월 24일 인천에서 개막하는 아시안선수권에 출전하고, 남자 대표팀은 2023년 1월 폴란드와 스웨덴이 공동 개최하는 세계선수권에 나간다.

2012년부터 아시아 선수권 6연패에 도전하는 여자 대표팀은 이란, 우즈베키스탄, 인도, 호주와 함께 A조에 편성됐다. B조는 일본, 중국, 홍콩, 카자흐스탄, 태국이다.

남자 세계선수권에서는 한국이 아이슬란드, 헝가리, 포르투갈과 함께 D조에 들어갔다. 프레타스 감독은 고국 포르투갈과 맞대결하게 됐다. 조 3위를 해야 결선리그에 오를 수 있으며 우리나라는 직전 대회인 2021년에는 32개 참가국 중 31위에 머물렀다.

여자 아시안선수권과 남자 세계선수권이 끝나면 2023년으로 미뤄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남녀 대표팀은 동반 금메달에 도전한다.

아시안게임 남녀 동반 금메달은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이 마지막이다. 🌐





첫 술에 배부를 순 없었다 외국인 감독의 남녀 대표팀, 뭐가 달라졌을까

한국 핸드볼 역사상 최초로 지휘봉을 잡은 남녀 외국인 감독들이 9월 열린 한일 정기전에서 공식경기 데뷔전을 가졌다. 여자 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김 라스무센 감독(50·덴마크)은 1차전에서 25-19, 2차전에서 23-19로 2연승을 거뒀다. 남자 대표팀의 홀란드 프레이타스 감독은(57·포르투갈) 1차전에서 19-25로 패했지만 안방에서 열린 2차전에서 10점 차(33-22)의 화끈한 설욕전을 펼쳤다.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된다는 한일전에서 4번 싸워 3번 이기며 체면치레를 했지만 기대 속에 경기를 유심히 본 핸드볼계 관계자들은 “이들이 약속했던 색깔을 갖추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글. 김배중 동아일보 기자

외국인 사령탑 데뷔전 '절반의 성공'

두 외국인 감독이 부임한 직후인 5월 중순, 남녀 핸드볼 대표팀은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1차 훈련을 진행했다. 이어 7월 말부터 약 한달 동안 남자 대표팀은 덴마크-포르투갈, 여자 대표팀은 덴마크-헝가리를 거치며 유럽 전지훈련을 다녀왔다. 여자 대표팀은 올해 11월 국내에서 열리는 아시아선수권대회를, 그리고 남자 대표팀은 내년 1월 폴란드와 스웨덴에서 공동 개최하는 세계선수권대회를 앞두고 있다. 각 팀의 현재 상황에 맞는 지도자를 선임했기에 훈련 내용도 많이 달랐다고 한다.

우선 아시아 최정상 전력을 갖춘 유럽 팀들과의 대등한 경기를 노리는 여자대표팀의 경우 일정 수준을 갖춘 국가대표팀, 클럽 팀 등을 맡아

우승까지 이끄는 등의 성과를 냈던 라스무센 감독의 지휘 아래 '효율성'이라는 단어와 어울리는 훈련을 했다. 한일전에서 주포 역할을 했던 이미경(부산시설공단)은 “유럽 스타일처럼 운동량이 자체는 많지 않았다. 하지만 1시간 반 정도만 훈련해도 3시간을 훈련한 효과가 난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1988년 서울 올림픽 은메달 이후 내리막길을 걸다 아시아의 변방까지 밀렸다는 평가를 받던 남자 대표팀은 팀 빌드업에 일가견이 있는 프레이타스 감독의 지휘 아래 질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많은 훈련을 받았다고 한다. 대한핸드볼협회의 한 관계자는 “훈련기간 동안 선수들이 강도 높은 훈련에 잔 부상들을 달고 살았다고 한다”고 전했다. 일종의 '체질개선'이 이뤄지는 과정이었다.

하지만 1, 2차 총 두 달 넘게 진행된 훈련의 성과가 당장 한일 정기전에서 나타나지는 않았다는 게 핸드볼계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라스무센 감독도 1, 2차전이 모두 끝난 후 “경기에서 이겨 좋았지만 공격이 매끄럽지 못했다. 전체적으로 스피드가 떨어졌고 선수들의 에너지가 부족해보였다”며 아쉬워했다.

인천에서 열린 2차전에서 여자 대표팀은 각각 7점을 기록한 주포 강경민(광주도시공사)과 이미경의 '개인기'에 의존하는 중앙 돌파 공격을 많이 시도했다. 외국인 감독들이 “한국만의 개성을 잃었다”고 지적했던 장면이기도 했다.

앞서 두 감독은 최근 국제대회에서 한국이 체구가 큰 유럽 선수들을 상대로 무리하게 가운데를 노리다가 빈 공간을 못 찾는다든지, 큰 선수들의 블록에 막히며 낭패를 본 일이 많다고 진단한 적이 있다. 라스무센 감독이 몇 차례 작전타임을 불러 “일본 수비수들과 거리를 두고 빠르게 패스를 돌려 상대의 빈틈을 노리라”는 주문을 했지만 체구가 작은 일본선수들을 상대로 한 두 선수의 돌파가 잘 먹혔고 슛 성공률

까지 87.5%(강경민), 77.8%(이미경)로 좋았기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모습이었다.

체구가 큰 유럽 선수들을 공략할 '필살기'로 여겨졌던 속공플레이도 제대로 안 나왔다. 2차전에서 여자 대표팀의 속공 성공은 2점에 불과했던 반면, 일본은 첫 득점을 시작으로 총 4점을 속공으로 성공시켰다. 한 지도자는 “어차피 선수들의 개인기량이나 노련미가 한국이 앞서 결과는 예상된 정기전이다”라며 “선수 6명이 빠르게 움직이며 공격하는 미들속공은 한국 핸드볼의 전매특허다. 이번 한일전에서 오히려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더 빠르고 부지런히 움직이는 핸드볼을 한 것 같다. 1차전을 치르고 2차전에서 경험이라든지 기량이 한 수 위라 평가받는 한국이 일본과의 점수 차를 벌릴 줄 알았는데 그 반대였다. 이겨도 이긴 것 같지 않은 느낌이다”라고 평가했다.



체질개선 중인 남녀 대표팀, 필요한 건 '시간'

여자 대표팀 입장에서는 역할할 측면도 있다. 지난해 도쿄 올림픽 이후 한국처럼 2024년 파리 올림픽을 목표로 새 틀을 짠 일본은 과감하게 20대 초반의 신예들 위주로 세대교체를 단행하고 대학 핸드볼 무대에서 명망 높은 쿠스모토 시게오 감독(58)을 지난해 10월 여자 대표팀 감독으로 선임했다. 일본의 젊은 선수들의 장점을 가장 잘 꿰고 있는 지도자가 지휘봉을 잡고 1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 일본 여자 핸드볼의 새로운 색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던 시점이다. 반면 한국의 경우 외국인 감독을 선임하고 갓 100일이 지났고 이들이 부담하기 전에 남녀 대표팀이 소집돼 소위 '라스무센호', '프레이타스호'라 수식하기 난처한 상황이었다. 감독들이 국내 선수들에 대한 특성을 좀 더 파악하고 감독들이 추구하는 핸드볼 색깔에 맞는

대표팀 구성을 하는 데 좀 더 목소리를 내는 단계가 앞으로 필요하다.

1차전에서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다 진 남자 대표팀의 경우 '각성한' 선수들이 2차전에서 후반으로 가면서 살아나기 시작, 활발한 움직임으로 33점 중 8점을 속공으로 내는 등 훈련의 성과를 서서히 드러내기도 했다. 한국의 빠른 움직임에 발이 묶인 일본은 2차전에서 속공을 2개만 성공했다. 감독과 선수, 그리고 선수들 간의 호흡이 앞으로 더 무르익는다면 어느 상대를 만나더라도 좋은 모습을 기대해볼 수 있을 만한 부분이었다.

결국 필요한 건 '시간'이다. 한 지도자는 "한국 핸드볼 역사상 첫 외국인 감독이다. 그렇기에 기대가 크고 반대로 만족스럽지 못한 어떤 결과에 대한 실망의 목소리도 큰 것 같다. 외국인 지도자라고 성공이 보장되는 건 아니다. 그리고 첫 술에 배부를 수도 없다. 새 지도자들에 대해 좀 더 시간을 두고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ZOOM IN

18세 이하 여자 대표팀은 어떻게 세계를 제패했을까?

18세 이하 한국 여자 대표팀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사상 첫 우승을 차지했다.

한국시간으로 7월 31일부터 8월 11일까지 북마케도니아 스키페에서 세계 32개국이 참가해 치러진 이번 대회에서 한국은 조별리그부터 8연승을 거두며 무패우승을 거뒀다. 조별리그(F조) 1차전 스위스전부터 결승전인 덴마크전까지 핸드볼 강국들이 포진한 유럽 팀들을 만나 모두 이기며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세계무대를 호령했던 'K핸드볼'의 저력을 보여줬다. 18세 이하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비유럽 국가 최초 우승이기도 했다.

세계 핸드볼계에서 한국의 우승은 꽤 반가운 소식이다. 올림픽, 세계선수권 등 굵직한 대회에서 유럽 국가들이 돌아가며 우승을 차지해 핸드볼은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할 위기였다. 성인대표팀에서 한국이 사상 최초의 외국인 지도자를 물색하고 있을 때 그런 측면에서 국제핸드볼연맹(IHF)은 과거 유럽 국가들과 팽팽한 경기를 펼쳤던 한국이 좋은 지도자를 찾을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고 한다.

18세 이하 여자대표팀의 선전은 지도력과 투자의 조화라고 현장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2018년부터 청소년대표팀을 지도하기 시작하고 이번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주장이 된 김진순 인천비즈니스고 감독(43)은 "18세 이하의 우리 선수들이 다른 나라의 동년배들에 비해 체계적으로 핸드볼을 배우와 기본적으로 기본기가 좋고 경기를 정교하게 풀 어갈 줄 안다. 과거에는 왼손잡이가 없다든지 대표팀 선수 구성상의 빈곳이 조금 있었는데, 이번 대표팀 선수 구성은 완벽했다"고 평가했다.

대한핸드볼협회가 2019년 처음 시작한 우수 선수 해외연수도 빛을 봤다. 이번 대표팀에서 뭉치 선수 중 세계선수권대회 최우수선수(MVP)에 오른 김민서(황지정보산업고)를 비롯해 이혜원(대구체고), 임서영(인천비즈니스고)은 핸드볼 최강국으로 꼽히는 헝가리로 해외연수를 다녀온 '1기' 멤버들이다. 김민서는 "약 3주 동안 같은 나이의 유럽 선

수들과 합숙훈련을 하며 우리와는 다른 스타일의 핸드볼을 배우며 익혔다. 이번 대회에서 유럽 팀들을 상대했을 때 그때의 경험들이 있었기에 주눅 들지 않고 우리의 플레이를 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키 160cm로 작은 편인 김민서는 자신보다 머리 하나쯤 더 큰 유럽 선수들을 상대로 빠른 스피드와 상대방의 무게중심을 무너뜨리는 영리한 움직임으로 8경기에서 58점, 35도움을 기록했다. 각 부문별 2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기성세대들과 뇌구조부터 다르다는 'MZ세대'(밀레니얼+Z세대)를 다루는 법을 체득한 김 감독의 지도력도 개성 넘치는 선수들이 모여 시너지를 내는 데 큰 도움이 됐다. 김 감독은 "선수들과 참 많이 싸웠다"며 웃었지만 항상 선수들에게 어떤 주머니나 질책을 하기 전에 '명확한 근거'를 찾기 위해 먼저 선수들의 플레이영상 등을 10번 넘게 보며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고 선수들 앞에서 자료를 근거로 납득을 시켰다고 한다. 2020년 프로야구 NC가 창단 첫 우승을 차지할 당시 데이터 분석 전문가로 정평 난 이동욱 전 NC 감독은 "요즘 선수들은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지 않으면 좀처럼 따라오려고 하지 않는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 김 감독 또한 요즘 선수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원칙들에 충실하고 있던 셈이다.

세계선수권대회 초반 시차적응 등에 애를 먹으며 조금만 뛰다가도 체력이 처져 고개를 숙이던 선수들도 점점 우승을 향해 이를 악물고 상대보다 한발 더 뛰는 싸움닭들이 됐다. 상대팀 선수들은 한국 선수들의 끈질긴 모습에 두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저었고 경기장을 찾은 관중들은 역동적인 한국 핸드볼에 빠져 국적을 불문하고 한국을 응원했다.

18세 이하 여자 선수들이 세계를 제패하고 약 한달 뒤 남자 선수들이 아시아청소년선수권대회에서 중동의 강호들을 연파하고 우승하며 한국핸드볼은 중흥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이제 우수한 떡잎들을 앞으로 어떻게 키워내는지에 따라 한국 핸드볼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 최근 한국 핸드볼은 대표팀에서 사상 첫 외국인 감독을 선임하고 2023-2024시즌부터 프로 핸드볼리그를 출범하는 등 나름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핸드볼계의 한 관계자는 "국내 선수들이 이 '18세'를 기점으로 성장세가 더더욱 커지며 유럽선수들에게 뒤처지는 경향은 예전부터 자주 나타났다. 유럽에서는 대학이나 프로에 가서 많은 경기를 뛰기 시작하며 선수들의 기량이 급성장하는 반면 한국은 대학이나 실업팀에 가면 저학년이나 저연차 선수들이 많은 기회를 못 얻고 암흑기를 보낸다. 모처럼만에 좋은 기회가 온 만큼 앞으로 이들을 어떻게 한국 핸드볼을 이끌 기둥들로 성장시킬지 핸드볼계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슈퍼땅콩’ 김민서가 들려준 세계무대 정복 비하인드 스토리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지난 8월 중순, 머나먼 타국 땅 마케도니아에서는 모처럼 만에 한국 여자핸드볼에 활기를 펼 낭보가 전해졌다. 김진순 감독이 이끄는 U-18 여자핸드볼대표팀이 전대미문의 8전 전승이라는 믿기지 않은 성적을 거두고 세계 정상에 우뚝 선 것이다. 2006년 초대 대회 준우승 이후 16년 만에 결승에 오른 한국은 첫 우승을 차지했고, 비유럽국가 중에서는 최초의 챔피언등극이었기에 더할 나위 없이 값진 결과였다. 그 중에서도 주전 센터백 김민서(황지정산고)는 득점과 도움에서 모두 2위에 오르며 최우수선수(MVP)상을 수상해 기쁨을 배로 누렸다. 160cm의 핸드볼 선수로서는 작은 체구에도 불구하고, 자신보다 신장이 큰 선수들을 상대로 돌진하고, 점수까지 뽑아내고 있는 김민서. 그의 작은 몸에 담긴 핸드볼 인생과 꿈을 들어보았다.

글. 서호민 기자 사진. 유용우 기자

악천후 회항 속 짐 분실까지 순탄치 않았던 ‘세계선수권 가는 길’

한국 대표팀은 U-18 여자 세계선수권대회 시작도 전에 갖가지 ‘액땀’을 했다. 인천비즈니스고 코치인 김진순 감독은 대회를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 갑작스럽게 대표팀 사령탑에 선임됐고, 이러한 이유로 16명의 선수단 또한 급하게 선발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출발만 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대회 준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건만, 또다른 문제가 쓰나미처럼 들이닥쳤다. 인천공항에서 대회가 열리는 북마케도니아 스키페에 가기까지 꼬박 이들이 걸렸다. 여기에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있었다.

Q. U-18 세계선수권대회가 끝나고 어떻게 지냈나요.

귀국하고 일주일 정도는 정신 없이 방송사 인터뷰를 하러 다녔던 것 같아요. 열흘 정도 지났는데 지금은 학교로 돌아와서 운동하고 공부도 하며 즐겁게 지내고 있어요.

Q. 핸드볼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은 건 아마 처음일 것 같아요. 우승의 여운이 아직까지 남아있나요.

시간이 좀 지나긴 했는데 가끔씩 대회 영상 다시 돌려보면 경기했을 때가 생각나기도 하고 아직도 믿기지 않고 소름이 돋아요.

Q. 대회 이야기를 해봅시다. 사실 이번 대회, 마케도니아에 가기까지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고 들었어요.

인천에서 오스트리아 빈을 거쳐 스키페(북마케도니아)로 이동하는 일정이었어요. 경유지인 빈 공항에서 9시간을 대기한 뒤 스키페로 가는 비행기를 탔는데, 도착할 때쯤 밖을 보니 빈 공항과 똑같이 생긴 거예요. 기상 악화로 인해 스키페로 못 들어가고 빈 공항으로 회항한 거였죠. 그렇게 빈에서 9시간을 대기한 뒤 다시 스키페로 가는 비행기를 탔고 한국에서 출발한 지 이들이 걸려 스키페에 도착했어요.

Q. 선수들로서 어려모로 당황했을 것 같은데요.

이 뿐만 아니라 2학년인 (김)서진이와 (임)서영이는 캐리어를 잃어버리는 해프닝까지 빚기도 했어요. 다행히 이들이 지나고서야 찾긴 했지만

요. 공항에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몸도 처지고 컨디션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동료들끼리 일부러 인형으로 패스 놀이하면서 조금이라도 움직이려고 노력했어요.

**“코트의 주인공은 우리”
마법 같은 일이 현실이 됐다**

대회 시작 전부터 갖은 해프닝을 겪었지만, 다행히도 대표팀 선수단은 김진순 감독을 중심으로 빠르게 어수선한 분위기를 추스른 뒤 대회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다. 다행히 외적인 해프닝은 경기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한국은 예선 첫 경기 스위스(32-28)를 시작으로 독일(34-28), 슬로바키아(34-30), 루마니아(33-31), 네덜란드(26-24), 스웨덴(33-27), 헝가리(30-29), 그리고 결승전 덴마크(31-28)까지 유럽의 강호들을 제압하고 8전 전승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개막 전만 해도 ‘아웃사이더(비주류)’라는 낮은 평가 속에 어떻게 이런 마법 같은 일을 벌여진 것일까.

Q. 갖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단 스위스와의 첫 경기를 승리하면서 스타트를 잘 끊었어요.

사실 소집했을 때도 3일 밖에 운동하지 못해서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같이 운동했던 친구들이라 호흡 맞추는데 큰 문제는 없었어요. 또, 주장 (김)송원이를 중심으로 2학년 동생들까지 선수단 전체가 ‘기죽지 말고 하나가 되자’라는 마음가짐으로 팀이 하나로 뭉쳤어요. 다행히 첫 경기 스위스 전 승리를 거뒀고, 두 번째 경기인 독일 전까지 이기면서 자신감을 되찾은 것 같아요.

Q. 우승하기까지 과정을 돌아켜보면, 최대 고비였던 경기는 언제였을까요?

4강 헝가리 전이었던 것 같아요. 헝가리는 유럽컵에서 우승한 팀인데 개인기와 팀워크의 조화가 고루 잘 이뤄졌고 스피드까지 견비해 상대하기 까다로웠어요. 또, 선수단 중에는 성인 대표팀에서 뛰는 선수들도 속해 있었어요. 아나나 다를까 맞붙어보니 빈틈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기에 놀리지는 않았어요. 김진순 감독님께서도 “상대가 30골을 넣으면 우리가 31골을 넣으면 된다”, “코트의 주인공은 우리다”라고 힘이 되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감독님의 말씀에 울컥한 친구들도 있었고 더 자신감을 받아 열심히 뛸 수 있었어요. 다행히 저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경기력이 잘 나왔고 끝까지 간절함을 잃지 않고 집중력을 발휘했기에 접전을 딛고 1점 차로 이길 수 있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나서는 모두가 감격에 겨워 다 같이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나요.

Q. 상대팀 선수들이 한국을 응원하는 보기 드문 풍경을 볼 수도 있었어요. 그만큼 한국 팀을 향한 관심이 뜨거웠는데, 현지 분위기는 어땠나요?

상대팀 선수들이 저희를 왜 응원하는지 몰랐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유럽팀들보다 피지컬적으로도 작는데 빠르고 개인 기술도 뛰어나다 보니까 그거에 반해서 응원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Q. 8전 전승을 거두며 아무도 예상치 못한 우승을 차지했어요. 우승 후 시상대에 올라갔을 때 기분은 어땠나요?

믿기지 않았죠. 시상대에 올라간 뒤에도 실감이 안 났어요. 솔직히 대회 전에는 4강권에만 들자는 마음으로 갔는데, 강팀들을 격파하다 보니까 이기고자, 하고자 마음이 커졌어요. 그런 간절함이 바탕이 돼 우승까지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Q. BEST7에 이어 MVP까지 선정되며 겹경사를 누렸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할 것 같아요.

베스트7은 조금 기대하고 있었는데 MVP까지 탈 줄 몰랐어요. 버스를 타고 숙소로 가는 도중에 MVP에 선정됐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믿기지 않았어요.

Q. 피지컬적으로 월등히 큰 유럽의 강호들을 연이어 무너뜨릴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분명 피지컬적인 부분에서 차이는 컸지만 유럽 선수들은 저희보다 스피드 측면에서 느렸어요. 빠른 스피드와 팀워크만큼은 저희가 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강점들을 극대화 시킨 게 좋은 결과로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4강에서 헝가리를 이겼는데 덴마크도 못 이기겠냐 그런 자신감도 있었고요. 경기를 거듭할수록 이러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 우승까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Q. 비유럽 국가 최초의 챔피언이 됐어요. 리틀 우생수이라는 타이틀이 달리기도 했는데 이러한 관심은 어떤가요.

핸드볼하면 우생수이잖아요. 그 영향이 가장 큰 것 같고 대단했던 선생님, 선배님들의 명성이 저희한테도 그대로 이어온 거라 엄청난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친구 따라 시작한 핸드볼,
소녀의 꿈이 되다**

김민서는 취미가 꿈이 된 케이스다. 과정은 자연스러웠다. 태백 황지초에 재학하던 4학년 중반, 친구 손에 이끌려 핸드볼 공을 잡았고, 간식 사준다는 코치님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다. 자연스레 핸드볼부가 입이 된 것. 시작을 함께한 친구들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 떠났지만, 김민서는 끝까지 살아남았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게 재밌었어요. 1골, 1골 넣을 때마다 핸드볼을 알아간다는 재미도 있었어요”라고 핸드볼 인생 초반을 떠올린 김민서. 선수의 길로 들어서기까지 부모님의 반대 등 어려움도 있었다. 하지만 딸의 굳건한 의지가 더 강했다. “일단 제가 너무 핸드볼을 계속해서 하고 싶었어요. 부모님의 엄청난 반대가 있었지만 진짜 핸드볼 아니면 안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죠. 결국 부모님도 저를 이기지 못하고 보내주시더라고요”

Q. 일명 ‘핸드볼 명문 코스’를 밟았어요. 핸드볼은 어떻게 시작하게



김민서
생년월일 2004.02.14
신장 160cm
포지션 센터백
출신교 황지초-세연중-황지정산고3
경력 2016 태백산기 초등부 우수선수상
2018 코리아대회 중등부 최우수선수상
2019 중고선수권대회 중등부 최우수선수상
2022 중별선수권대회 고등부 우수선수상
태백산기 고등부 최우수선수상
U-18 청소년 세계선수권대회 MVP



됐나요.

초등학교 4학년 6월쯤이었나, 친구의 권유로 시작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선수 해야지 이런 생각보다 공 놀이 하는 게 재밌었나까 어린 마음에 시작했던 것 같아요. 원래 어렸을 때부터 학교 체육대회 하면 달리기 계주에 나가는 등 활발한 운동을 좋아했어요. 또, 핸드볼이 맘도 많이 나고 동적인 스포츠잖아요. 그런 매력에 빠졌던 것 같아요.

Q. 운동을 시작하는 여느 학생과 마찬가지로 부모님의 반대가 심했다고 들었어요.

4학년에 시작했다가 잠시 핸드볼 공을 놓은 뒤 5학년 때 다시 시작했어요. 안 그래도 부모님의 반대가 심했는데 그 때는 더 심했어요. 저는 운동이 너무 하고 싶은데 제 뜻대로 할 수 없었나까 부모님께 편지를 썼죠. 그랬더니 1주일 정도만 해보라고 겨우 허락을 받았어요. 이제 한달이 지나고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핸드볼에 재미를 붙이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학교에서 주축 선수로 뛰다 보니 부모님께서도 좋아해주셨어요.

“160cm 겨우 넘을 걸요?”

핸드볼은 신장이 아니라 심장으로 하는 것

김민서는 ‘실제 키’를 묻는 질문에 “핸드볼 선수치고 조금 작은 편이죠?”라며 빙그레 웃었다. 핸드볼 선수, 특히 센터백으로는 이례적으로 작은 키다. 비슷한 또래 선수들과 무려 10cm나 차이 난다. 하지만 작은 체구라고 알았다간 큰 코 다친다. 신장이 작은 대신 빠른 스피드로 코트를 휘젓는 모습은 팬들에게 큰 즐거움이다. 더구나 쉽게 보기 힘든 장면을 연출하는 감각적인 패스를 보여주는 선수라면 더욱 큰 환상을 불러일으킨다. 김민서가 딱 그렇다. ‘키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격언이 있듯 김민서는 “지금은 단점을 장점으로 부각시키자는 마인드다. 키가 작으면 빨라야 한다. 스피드와 센스 같은 부분에서 장점을 더 살리려고 노력한다”며 키 큰 선수들 사이에서 생존하는 자신의 비법(?)을 전했다.

Q. 원래 포지션도 센터백이었나요.

처음 시작했을 때는 선수가 많이 없어서 이것저것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본 포지션인 센터백을 가장 많이 보긴 했지만 피벗 등 여러 포지션을 소화했던 것 같아요. 또, 고등학교 진학하고 나서는 레프트 윙까지 소화하기도 했어요.

Q. 성장하는 과정에서 실력이 가장 크게 향상한 시기는 언제였나요.

중학교 2학년부터 3학년 올라갈 시기였던 것 같아요. 코치 선생님께서 “내가 주축이 되어야 하고 센터백으로서 팀을 아우를 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해주셨고 그 시기에 많이 배우고 경기에 나서면서 실력이 늘게 됐습니다.

Q. 아무래도 핸드볼 선수치고는 신장이 작은 편에 속해요. 작은 신장에 대한 어려움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상대 하는 선수들보다 키가 작다 보니까 경기 뛰면서 어려운 부분이 많았는데 지금은 단점을 장점으로 부각시키자는 마인드예요. 스피드만큼은 누구보다 안 뒤질 자신이 있거든요. 이번 세계선수권대회에서도 스피드와 패스워크 등 장점을 잘 극대화했기에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것 같아요. 키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해요.

**제2의 김은아 꼭 될래요!
“기대하고 응원해주세요”**

3학년 졸업반으로 내년이면 성인무대 데뷔를 앞둔 그는 대학을 가지 않고 실업행을 결정했다. 자신의 진로를 두고 큰 고민은 하지 않았다고. 하루라도 빨리 큰 무대에서 부딪히며 경험을 쌓고 싶다는 생각이 컸다. 그에 대한 실업팀들의 관심도 상당히 높다. 연령별 대표팀에 차출돼 커리어를 쌓아와 향후 한국 여자핸드볼의 미래를 짊어질 차세대 주역으로 주목받고 있는 김민서. 연령별 대표팀의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된 김민서는 이제 성인무대에서 그 존재감을 드러내고자 한다.

Q. 실업행을 선택하셨어요.

진로를 놓고 크게 고민하지는 않았어요. 하루라도 빨리 큰 무대에서 부딪히며 경험을 쌓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어요.

Q. 다가올 드래프트에 참가하게 될 텐데 실업 관계자들에게 자신을 어필한다면요.

스피드, 공수전환, 과감함 등을 꼽고 싶어요. 또, 이번에 U-18 대표팀에서 성과를 냈으니 실업 팀 관계자 분들도 관심 갖고 지켜보셨을 거라 생각해요.

Q. 드래프트 순번에 대한 욕심은 없나요.

순번에 대한 딱히 욕심은 없는데 그래도 1라운드 안에 뽑히면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Q. 롤 모델은 누구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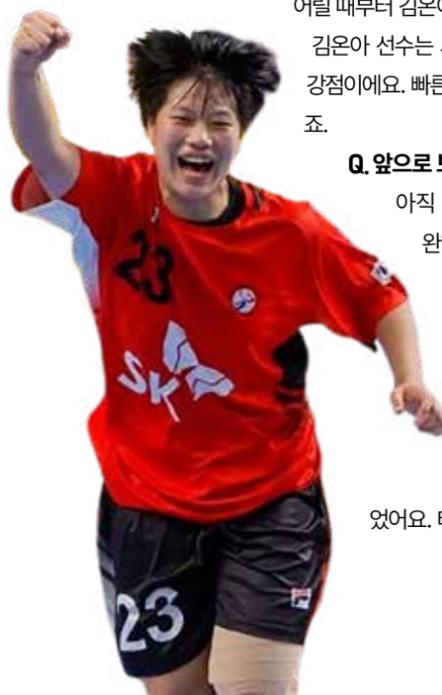
어릴 때부터 김은아, 강경민 선수를 좋아했어요. 김은아 선수는 시야가 넓고 강경민 스피드가 강점이예요. 빠른 핸드볼의 정석이라 할 수 있죠.

Q. 앞으로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면요.

아직 슈팅이 약해서 슈팅을 더 보완하고 싶어요.

Q. 훗날 성인 대표팀에 발탁되는 꿈도 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한일 정기전을 보면서 언니들 사이에서 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태극마크라는 게 나라를 대표



해서 뛰는 거잖아요. 자부심도 있을 테고 그에 따른 책임감, 부담감도 따를 거라 생각해요. 또 국내 팀과는 완전히 다른 색깔을 지닌 팀들과 경기를 하는 거니까 그런 팀들과 맞붙으면서 제 개인적으로도 얻는 게 많을 거라 생각해요.

Q. 앞으로 어떤 선수가 되고 싶은가요.

잠깐을 뛰더라도 팀에 도움이 되는 선수가 되고 싶어요. 또, 센터백으로서 경기 조율을 잘하는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Q.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목표를 들어볼까요.

성인 대표팀에도 뽑혀서 한국 여자 핸드볼의 역사를 계속해서 새로 쓰고 싶어요. 이번 대회 새벽에 경기가 많았는데 밤잠 설쳐가며 관심 갖고 지켜봐주시는 팬들께도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요. 여자 핸드볼 인기가 부흥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8전 전승 우승 신화’ U-18 여자대표팀 김진순 감독

한국의 우승 팀 배경에는 김진순 감독의 엄마 같은 리더십이 있었다. 김진순 감독은 2000년 시드니올림픽 국가대표 출신이다. 현역 시절엔 일본 리그에 진출해 2005년 득점왕까지 오른 바 있다. 이번 대회, 갖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차분히 선수들을 독려하며 팀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이 빛났다. 한국 여자핸드볼의 미래를 이끌고 다시 한번 위상을 드높인 김 감독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8월 매직 지도자상의 영광을 안기도 했다.

김 감독은 “사실 출국 때만 하더라도 색깔과 관계없이 메달을 가져오는 생각이었어요. 대회 전부터 여러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도 아이들이 푹 잘 뭉쳤고 분위기를 타 금메달을 따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기쁘고 뿌듯합니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쉽지 않은 여정을 다시 돌이켜 본 그는 “매 경기를 하다보면 위기의 순간이 오잖아요. 헝가리 전에서는 4골을 뒤지고 있었는데, 솔직히 어린 선수들이 4골을 뒤집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수들 전원이 끝까지 멘탈 흔들리지 않으며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거예요. 결국 위기를 극복해내며 점수를 뒤집는 걸 보고 너무나도 대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저보다는 선수들의 힘으로 일궈낸 결과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선수들에게 너무나 고맙고 수고했다고 말해주고 싶어요”라며 “그리고 3학년 선수들은 곧 있으면 성인 무대로 진출할텐데 초심 잃지 않고 지금보다 더 훌륭한 선수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라고 제자들의 밝은 앞날을 응원했다.

14개 팀, 총성 없는 전쟁 시작 오프시즌 어떻게 보냈을까



2022-2023 SK핸드볼코리아리그가 개막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핸드볼협회는 남자부 11월 중순, 여자부 1월 경에 리그를 개막하는 것을 목표로 세부 일정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3년 만에 전국체전이 개최됐기 때문에 남녀부 각팀 선수들은 숨 돌릴 틈 없이 예년보다 일찍 시즌 준비에 돌입했다. 저마다 우승이라는 목표를 내걸고 마지막 스퍼트를 끌어올리고 있는 가운데 14개 팀 감독들로부터 새 시즌에 임하는 각오와 준비 상황 등을 들어봤다.
글. 서호민 기자

리빌딩 모드로 변신, 두산의 새로운 시작

남자부
두산 윤경신 감독

“주축 선수들이 개인 사정으로 이탈해 선수 구성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따랐다. 여기에 김동욱이 군 입대로 인해 공백이 생겼다. 때문에 올 시즌은 리빌딩한다는 생각으로 노선을 정했다. 아직 대학 선수들 중에 누가 팀에 합류할지 결정이 나지 않았는데 새로 합류할 선수들 포함 어린 선수들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시즌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한끗 차이 우승 실패, 올해는 다르다

SK호크스 황보성일 감독

“대표팀 차출 인원이 많아서 오프시즌 때는 나머지 선수들과 개인 기량 향상을 위주로 훈련 시간을 소화했다. 지난 시즌 아쉽게도 챔피언

에 오르지 못했다. 하지만 선수들에게는 큰 경험이 됐을 것이다. 우승을 하지 못한 데는 여러 요인이 있었는데, 보이지 않는 실책 등 디테일한 부분을 더 보완하고 싶다. 선수들 사이에서도 다음 시즌 해볼 수 있다는 자신감과 동기부여가 심어져 있다. 6년 전, 처음 창단했을 때 94년생 선수들이 많이 입단했는데 이 선수들이 어느덧 서른 줄을 바라보고 있다. 중고참 반열에 오르게 됐는데 이 선수들에게 좀 더 책임감을 부여할 생각이다. 지휘봉을 잡고 5년 째 접어들었는데 매년 한끗 차이를 극복하지 못해 턱밑에서 미끄러졌다. 올해 역시 대권에 다시 도전해 꼭 우승할 수 있도록 선수들과 합심해 최선을 다하겠다”

여전히 건재한 국대급 멤버, 목표는 당연히 우승

인천도시공사 정강욱 감독

“올 시즌 목표도 변함없이 우승이다. 긍정적인 부분은 특별한 부상자 없이 오프시즌 훈련을 잘 소화해줬다. 낙오자도 없었다. 선수들 역시

우승에 대한 목표 의식이 뚜렷해 기대해볼만하다고 생각한다. 또, 심재복을 비롯해 정수영, 하민호 등 각 포지션 최고의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지 않나.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되는 지가 중요한데 물론 우승하기 위해서는 운도 따라야 한다. 하지만 여름에 정말 열심히 땀을 흘린 만큼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본다”

스피드 핸드볼 앞세워 첫 PO 도전

하남시청 박성립 감독

“우선 현재로서는 팀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박재용, 서현호가 군에 입대하고 이정화는 무릎 부상으로 은퇴를 선언했다. 가용할 수 있는 인원은 12명 정도다. 그래도 다행히도 유찬민(한국체대), 신동혁(경희대) 등 대학에서 2명의 선수를 수혈했고, 리그 개막 즈음에는 4명의 선수가 군에서 제대, 소속 팀으로 복귀한다. 전국체전을 치른 뒤 상무로 전지훈련을 떠날 계획이다. 박재용을 비롯해 올해 상무에 입대한 선수들의 신장이 대체적으로 크고 기량도 좋다. 또, 상무가 스피드 있는 핸드볼을 추구하기 때문에 같이 훈련하면 스피드적인 면에서도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2018년 팀 창단 이후 4시즌을 치렀는데 4시즌 모두 4위를 했다. 이번에는 4위에서 벗어나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다. 에이스 박광순 선수의 몸 상태가 7~80% 정도 올라왔고 상무에서 전역하는 선수들이 센터백 포지션을 메꾼다면 충분히 플레이오프까지 가는 데 경쟁력이 있을 거라 생각한다”

팀 분위기는 1등, 경기력으로도 이어간다

충남도청 김태훈 감독

“여름에 두 차례에 걸쳐 삼척으로 전지훈련을 다녀왔다. 모든 팀이 그렇듯 오프시즌에는 부상 회복, 체력 보강하는 데 시간을 보냈다. 체육관 사정 등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했지만 그래도 선수들이 오프시즌 훈련을 정상적으로 소화해줬고 몸 상태도 좋은 상태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오황제 선수가 대표팀에 차출되어 있는 기간, 부상을 당했다는 것이다. 어깨를 다쳐 12월 중에 수술이 예정되어 있는데 복귀 시기는 아직 언제라고 말씀드리기 어렵다. 우리 팀으로서 상당한 타격이다. 현재로서는 나머지 선수들이 한발 더 뛰어 오황제의 공백을 메워주는 수 밖에 없다. 다행히도 앞서 말했듯이 선수들의 몸상태가 좋고 그 어느 때보다 하려고 하는 의지도 돋보인다. 고참 선수들과 후배들의 밀고 당기기가 잘 이뤄지는 등 신규조화가 빛을 발하고 있다. 김동명, 최현근 등의 기량도 많이 올라와 새 시즌이 더욱 기대된다. 이런 점들이 본 경기에서도 잘 드러난다면 지난 시즌보다 좋은 성적을 기대해볼 수 있다고 본다. 단, 중요한 건 부상이다. 올해의 경우 전국체전까지 열려 예년보다 일정이 빡빡해졌는데 선수들이 몸을 잘 만들어 리그까지 건강한 몸상태로 한 시즌을 소화했으면 한다”

‘역대급 군번’ 또 한 번 황금기를...

상무피닉스 조영신 감독

“8월 11일부터 10명의 선수가 전입 왔다. 기존 선수들과 새로 합류한 선수들이 전국체전, 그리고 곧 다가올 리그를 대비해 두 달 정도 손발을 맞췄다. 또 신병 선수 중에 기량이 좋은 선수들이 많고 몸상태도 70%까지 올라와 있어 기대가 된다. 전국체전을 통해 드러난 보완점들을 잘 보완해 리그에 돌입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상무라는 팀 특성상 오랜 기간 같은 전력이 유지될 수가 없다.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어려움이 있지만 새로 들어온 신병 선수들을 최대한 활용해 실업팀들에게 도전해보고 싶다. 전술적인 면에서는 지난 해보다 더 빠른 속공 위주의 핸드볼을 펼쳐보고 싶다. 이를 대비해 오프시즌 훈련 때도 속공에 많은 비중을 두고 훈련을 진행했다. 고무적인 점은 지난 해는 9명으로 팀을 꾸렸지만 올해는 11명으로 가용 인원이 늘었다. 아마 선수 활용 면에서는 지난 해보다 한결 더 수월해 질 것이다. 지난 해 1승 밖에 거두지 못했는데 올해는 3승 이상의 성적으로 목표로 멋진 경기 보여드리겠다”



타이를 방어자, 2년 연속 통합우승 노린다

여자부

삼척시청

이계청 감독

“원래 인천에서 전지 훈련을 소화하려 했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았고 하남, 천안, 청주 등을 오가며 두 차례에 걸쳐 전지훈련을 진행했다. 많은 경기를 소화한 데에 따른 피로도와 잔부상을 케어하는데 시간을 할애했다. 중간 중간 중학교 남자 팀들과 연습경기를 치르며 피치를 끌어올렸다. 2차 전지훈련을 마친 뒤에는 삼척으로 다시 돌아와 전국체전을 목표로 마지막 담금질에 임했다. 지난 시즌 통합 우승했는데 이제 타이틀 방어에 나서야 하는 입장이다. 오히려 부담이 되기도 하고 힘든 면도 있다(웃음). 또, 선수 재계약, FA, 드래프트 등 시즌을 앞두고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남아 있다. 기존 전력 그대로 유지되면 다시 한번 대권을 노릴 수 있겠지만, 전력 누수가 발생했을 때 이에 따른 대비도 해놓아야 한다. 무엇보다 새 시즌에는 부상자가 나타나지 않았으면 한다. 오프시즌에도 몇몇 선수들이 부상으로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남은 기간 동안 몸 관리를 잘해서 부상 없이 다음 시즌에도 좋은 성적을 거둬야 한다”

해마다 좋아지는 성적, 다음 목표는 우승?

광주도시공사

오세일 감독

“수술한 선수가 있었고 잔부상자들이 많아 회복하는 데 집중했다. 또, 강경민 등 대표팀에 차출 된 선수들도 있었다. 대신 2, 3년차 선수들이 개인 훈련에 많은 시간을 쏟아부었다. 다가오는 시즌에는 원선필이 최고참이다. 원선필을 중심으로 강경민, 그리고 밑에 어린 선수들이 지난 시즌처럼 제 몫을 해준다면 올 시즌도 좋은 성적 기대해볼만하다. 또, 정현희, 김지혜 등도 연차가 쌓이고 있기 때문에 올해를 잘 넘기면 내년, 내후년 계속해서 더 높은 곳을 향해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어린 선수들 중에서는 김지안에게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 아직 초, 중, 고등학교 때 배어 있는 습관이 있는데, 하루 아침에 바뀌기는 쉽지 않다. 시간적인 틈을 두고 차근차근 성장시키려 한다”

이미경 합류, 2년 만의 우승 꿈 무르익는다

부산시설공단

신창호 코치

“이미경이 일본에서 돌아와 팀에 합류하면서 전력이 강화됐다. 여름부터 이미경을 중심으로 손발을 맞췄다. 또, 리그를 앞두고는 외국인 선수들도 2명 새롭게 합류할 예정이다. 아무래도 젊은 축에 속하는 이미경이 합류함으로써 이전보다 한층 더 빠르면서 공격적인 핸드볼을 구사할 거라는 기대감이 든다. 또, 재활 중인 심해인의 계약 마지막 해이기도 하다. 그래서 저희 팀으로선 더 중요한 시즌이 되지 않을까 싶다”



김경진호 출범, 성적만큼 중요한 것은 소통

SK슈가글라이더즈

김경진 감독

“오프시즌 부상자들이 많아서 선수들 재활, 치료하는 데 시간을 보냈고 또 대표팀에 선수들이 차출 돼 손발 맞출 여유가 많이 없었다. 한일 정기전 끝나고 9월부터 모든 전력이 들어와 손발을 맞추기 시작했다. 부임 후 첫 시즌이기 때문에 우선은 선수들과의 소통하는 것이 주어진 과제가 아닌가 싶다. 경기 외적으로도 그렇고 내적으로도 전술적인 면에서도 잘 녹아들게 하고 싶다”

어제보다 나은 내일 꿈꾼다

인천광역시청

문필희 감독

“오프시즌에는 체력 관리를 하면서 전국체전과 리그를 준비했다. 아무래도 리그 끝나고 나서 공백기가 길었기 때문에 몸 상태 끌어올리

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목표는 경기력, 성적 모두 이전보다 한 단계 나아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다”

올 시즌에는 봄에도 핸드볼 하자!

경남개발공사

김현창 감독

“지난 시즌 유독 실책이 많았는데 올 시즌에는 실책을 최소화 하자는 걸 강조하고 싶다. 저희 팀 제외하면 모든 팀이 4강 이상 성적을 거뒀다. 올해 역시 4강권 이내 진입이 목표다. 부상 없이 한 시즌 잘 치를 수 있도록 선수들을 서포트하겠다”

어린 선수들 중심의 성장을 도모한다

서울시청

정연호 감독

“지난 시즌을 돌아보면 주축 선수들 가운데 부상자가 발생했지만

이를 틈타 어린 선수들이 기회를 잡아 새로운 희망을 볼 수 있었다. 어린 선수들끼리 하는 새로운 패턴도 가동할 수 있었고 이 선수들이하고자 하는 의욕이 좋은 만큼 여세를 이어간다면 지난 시즌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위치에 올라 있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세대교체 작업, 속도 붙인다

대구광역시청

이재서 감독

“팀적으로는 지난 시즌을 기점으로 세대 교체를 단행했는데 앞으로 이러한 기조는 계속 될 예정이다. 오프시즌 때도 어린 선수들이 한 단계 성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훈련을 진행했다. 큰 성적을 바라기보다는 어린 선수들이 팀에 완전히 녹아들고 개인 기량이 성장하는 데 힘을 쏟아부을 계획이다”



정지인



이혜원



김민서



진유성



정미르



이준희

새 시즌 핸드볼리그를 빛낼 신인 최대어 BIG 3는 누구?

여자부

정지인

한국체대 RW

여자부 최대어는 단연 정지인이다. 정지인은 주니어 시절부터 연령별 국가대표를 모두 거치며 소위 말하는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다. 또, 3학년인 지난해에는 성인 국가대표팀에도 승선하며 생애 처음으로 올림픽을 경험하기도 했다. 180cm에 달하는 장신으로 빠르면서도 화려한 몸놀림으로 시원시원하게 득점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정지인의 가장 큰 무기다. 물론 보완해야 될 부분도 있다. 예년부터 웨이트에 대한 약점을 안고 있다. 몸싸움이 거친 실업리그에서 그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파워적인 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평이다. 하지만 국제대회 경험이 풍부하고 워낙 공격적인 재능이 뛰어난 만큼 이 부분에서 보완이 이뤄진다면 머지 않아 실업 무대에서 크게 빛을 볼 수 있을 거라는 게 핸드볼계의 시선이다.

이혜원

대구체고 RB

원손잡이는 희소치 덕분에 성공 가능성도 높다. 더욱이 최근 여자부 실업에선 원손잡이 기근에 시달리고 있기에 원손잡이가 관계자들의 많은 주목을 끌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원손잡이가 필요한 팀이라면 이혜원의 이름을 그냥 지나칠 수 없을 것이다. U-18 세계선수권대회 우승 주역인 김민서와 더불어 연령별 대표팀을 모두 경험

하며 라이트백으로서의 재능을 인정 받았다. 이혜원을 지도한 김진순 U-18 대표팀 감독은 “원손잡이 백 포지션이다 보니 실업에 가서도 활용도가 높을 것이다. 이번에 세계선수권대회에 가서도 잘했고 무엇보다 어린 선수답지 않게 습득력과 이해 능력이 빠르다. 경험이 부족하지만 이는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있을 거라 본다”라고 이혜원의 재능을 높이 평가했다.

김민서

항지정산고 CB

지난 8월, U-18 세계선수권대회를 본 사람은 김민서의 재능이 국제 무대에서도 통한다는 것을 느꼈을 것이다. 신장은 그저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있는 사례다. 김민서는 신장 160cm로 센터백치고 작은 신장이지만 번뜩이는 돌파를 바탕으로 한 득점력만큼은 고교 무대에서 단연 최고로 평가 받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그는 세계선수권대회에서도 유럽의 장신 선수들을 상대로 시원시원한 득점력을 보여주며 대회 베스트7과 함께 MVP에 선정되는 영광을 누렸다. 한국체대 백상서 감독은 “키가 작은데도 돌파 능력이 좋고 또, 이 뿐만 아니라 어시스트나 경기 조율 능력이 뛰어나다. 무엇보다 센스나 경기 운영 면에서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업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을 거라 예상한다”고 김민서의 성공을 예감했다.

남자부

진유성

한국체대 PV

피벗 포지션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현재, 대부분의 핸드볼 관계자들은 대학 최고의 피벗 진유성을 주시하고 있을 것이다. 실제 많은 실업팀 관계자들이 진유성을 데려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한다는 후문이다. 진유성은 올해 4학년 졸업생 중 최대어로 뽑히고 있다. 190cm, 91kg의 다부진 신체 조건을 지닌 진유성의 최대 강점은 날렵한 센터플레이다. 공을 잡고 슛을 쓰기까지 과정이 매우 빠르다. 이를 바탕으로 그는 2022 대학핸드볼 통합리그 결승전에서도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치며 한국체대의 우승을 이끌었고 MVP까지 수상했다. 진유성은 실업 무대 도전을 앞두고 “어느 팀을 가건 피벗에서 독보적인 선수가 되고 싶다”는 각오를 밝힌 바 있다. 현재 실업 남자부에선 유독 피벗의 씨가 마르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진유성이 빠르게 자리를 꿰찰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은다.

정미르

원광대 LB

지난해, 이병주(하남시청)가 레프트백 선수 가운데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다면 올해는 정미르가 그 뒤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미르의 주 포지션은 레프트백이다. 이미 정석항공과하고 시절부터 큰 두각을 드러내며 대형 레프트백의 탄생을 예고했던 정미르는 대학에서도 성

2022-2023 핸드볼코리아리그 개막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새 시즌을 빛낼 뉴 페이스들은 누가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남자부는 자유계약제로, 여자부는 드래프트제로 신인을 뽑는다. 예년만큼 선수 풀이 좋지는 않다는 평이지만, 역대 사례를 봐도 훌쩍의 진주를 캐낸 경우는 수차례 나왔다. 각 구단들의 미래를 좌우할 새로운 선수들은 누가 있을까. 그 중에서도 남녀부 최대어로 꼽히고 있는 선수에 대해서 알아봤다.

글. 서호민 기자

장세를 이어가 원광대의 전성시대를 이끌었다. 정미르는 팀에서 없어서 안 되는 소금 같은 존재다. 늘 팀을 먼저 생각하며 이타적인 플레이가 그의 가장 큰 장점이다. 190cm의 110kg에 달하는 단단한 신체조건은 정미르의 능력을 더욱 돋보이하게 하는 요소다. 따라서 레프트백으로서 여러 모로 활용 가치가 높은 그는 어느 팀을 가건 자기 몫을 해줄 선수로 평가 받고 있다.

이준희

원광대 RW

뒷선에 정미르가 있다면 앞선에는 이준희를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원광대는 최근 대학리그에서 용두사미 시즌을 치를 때가 많았다. 출발이 좋았지만, 시즌 끝까지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며 좋지 않게 끝내곤 했다. 올해는 달랐다. 이준희가 공격에서 그 중심을 잘 잡아준 덕분이다. 지난 5월, 제77회 전국 종합선수권대회에서는 팀을 우승으로 이끌며 MVP에도 선정됐다. 182cm, 85kg로 핸드볼 선수로서 뛰어난 신체조건을 지닌 것은 아니지만 한 박자 빠른 슈팅 능력에 일대일 페인팅 능력 등 공격력에 있어서는 대학무대에 적응이 없다는 평이다. 여기에 원손잡이 오른쪽 윙어라는 메리트도 가지고 있다. 공격력이 부족한 팀이라면 이준희를 선택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볼만하다. 🏐



양양 낙산해수욕장이 핸드볼로 달아올랐다 2022 코리아 비치핸드볼 페스티벌

뜨거운 여름의 끝자락, 양양 낙산해수욕장에 비치핸드볼이 상륙했다. 대한핸드볼협회는 지난 8월 27일부터 31일까지 양양 낙산해수욕장에서 2022 코리아 비치핸드볼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띄약별 아래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 그런 선수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주최 측과 자리를 빛내준 팬들까지. 모두가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했던 양양의 풍경을 생생하게 담아왔다.
글. 김희수 기자

뜨거운 해변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3년 만에 열린 비치핸드볼에 쏟아진 환호

이번 비치핸드볼 페스티벌은 2019년 부산에서 테스트 이벤트를 개최한 이후 3년 만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열린 공식 비치핸드볼 이벤트이다. 8월 27~28일에는 국내 클럽 팀들이 초청되어 이벤트 매치를 가졌고, 이어지는 29~30일에는 필리핀, 베트남 대표팀과 한국 A·B팀이 친선 경기를 했다. 31일에는 3개국 합동 훈련 및 비치핸드볼 저변 확대를 위한 세미나가 진행됐다.

핸드볼코리아가 방문한 28일에는 한국 A팀과 필리핀, 한국 B팀과 베트남의 경기가 있었다. 낙산해수욕장의 중심부에 마련된 비치핸드볼 특설 경기장에는 경기 시작 전부터 많은 선수들이 몸을 풀고 있었다. 경기장 옆에 설치된 관중석에는 경기를 보러온 팬들이 양산으로 햇빛을 피하며 경기를 기다렸다.

이번 대회는 테스트 이벤트의 성격인 만큼 선수들도 부담 없이 경기를 즐기는 느낌이었다. 상대 팀 선수들과도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고 하이파이브도 주고받았다. 물론 경기 시작 전 국가가 연주되는 순간만큼은 모두 진지한 모습이었다. 경기는 핸드볼보다 더 빠른 템포로 진행됐다. 경기장이 크지 않은 만큼 공수 전환 속도도 빨랐고, 이 외에도 잦은 선수 교대 등으로 인해 전반적인 경기의 박진감과 속도감이 대단했다.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음악이 계속 나오는 것도 색다른 부분이었다. 신나는 음악과 함께 현장 해설의 흥겨운 멘트들이 더해지며 경기장은 마치 페스티벌의 현장처럼 느껴졌다. 경기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비치핸드볼이라는 종목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들은 많았다. 경기를 지켜보던 팬들은 마치 여름 축제를 즐기는 듯한 모습이었다. 물론 본격적으로 치른 첫 대회였기 때문에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었다. 관중석에 그늘막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다 보니 햇빛을 피할 공간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가 하면, 전광판의 시간 체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양 팀에서 항의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했다.

한국은 이날 펼쳐진 2번의 경기에서 모두 0-2로 패했다. 특히 2경기였던 필리핀과 경기는 1, 2피리어드 모두 접전 끝에 패해 아쉬움을 삼켰다. 한국은 1피리어드 종료 11초 전까지 18-18 동점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작전 타임 이후 필리핀이 성공적인 공격 작업을 만들어내며 18-19 역전패를 당했다. 2피리어드는 초반 3분 동안 4-8로 끌려가다가 종료 2분여를 남기고 14-15까지 추격했지만 역전에 실패하며 18-23으로 패했다. 물론 경기가 끝난 후에는 결과와 상관없이 서로를 격려하고 밝게 웃으며 대회 자체를 즐기는 모습을 보여줬다.

**차근차근 경험 쌓아가는 한국 비치핸드볼
“더 제대로 해보고 싶어요”**

이번 비치핸드볼 페스티벌은 비치핸드볼이라는 종목이 한국에서 첫 발걸음을 뚫는 것이나 다름없는 행사였다. 이번 비치핸드볼 페스티벌이 성황리에 마무리되면서, 앞으로 비치핸드볼이라는 종목이 한국에서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을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관계자들과 선수들 역시 이미 더 큰 목표를 조준하고 있다. 벌써부터 내년 여름 해변 위의 비치핸드볼이 기대되는 이유다. 경기를 마치고, 대회를 주관했던 구본옥 비치핸드볼 TF 팀장, 그리고 대회에 참가했던 선수들을 만나 대화를 나눴다.

구본옥 비치핸드볼 TF팀장

Q. 대회 개최 소감을 부탁드립니다.

실내경기는 많이 치러왔지만, 비치핸드볼은 경기장이 야외라보니 모든 것을 새로 만들어야 해서 힘들었다. TF팀 위원들이 많은 노력을 했다. 대회 1주일 전부터 모든 작업을 직접 했다. 고생한 보람이 조금 느껴진다. 국내 첫 대회라는 의미를 또 한 번 되새길 수 있었다. 앞으로도 이런 대회 진행을 많이 해보고 싶다.



Q. 양양 낙산 해수욕장에서 처음 열린 대회다. 대회 개최 장소로 어땠는지?

양양에도 해수욕장이 많다. 양양하면 서피비치가 더 유명하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으면 경기장 설치에 어려움이 있어서 낙산으로 왔다. 낙산은 충분히 좋은 곳이었다. 사람들이 더 많은 곳으로 협조가 이뤄진다면 더 큰 이벤트가 될 것 같다.

Q. 비치핸드볼 TF팀 구성 이후 대회 개최까지의 과정을 들려달라.

비치핸드볼을 대한민국에서 아는 사람은 사실상 없었다. 5월 베트남 동남아 아시안게임에 직접 방문해서 모든 대회 운영 과정 및 진행 방식을 다 배워왔다. 지금 경기장도 거기서 본 것을 토대로 만든 것이다.

Q. 2019년 부산 대회에 비해 발전한 점이 있다면?

부산 대회는 청소년 대표 A/B팀으로 테스트 이벤트를 진행했다. 그러나 경기장 규격도 지키지 못했고, 간이 경기 정도의 세팅이었다. 이번엔 대한핸드볼협회에서 많은 투자를 해서 실제 대회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했다. 협회와 핸드볼아카데미에 감사드린다.

Q. 대회를 진행하면서 느낀 점은? 보완해야 할 부분은 뭐가 있을까.

일단 선수들의 경기력이 좀 더 올라와야 흥행에 도움이 될 것이다. 아직은 비치핸드볼 전문 대표팀이 없다. 지금은 대학 팀에서 파견을 해준 선수들로 구성된 팀이다. 시기 상 대학 팀에서 파견 협조가 어렵지 않아서 다행이었다. 다음 대회가 열린다면 선수들 훈련 기간을 늘리고 싶다. 물론 이번에 모인 선수들은 적은 훈련 기간에도 너무 잘해줬다.

고맙게 생각한다.

Q. 비치핸드볼의 잠재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

현재로서는 2028 LA 올림픽 시범종목 편성이 유력하다. IOC에서 긍정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다. 대한민국은 핸드볼을 잘하는 나라다. 그래서 비치핸드볼로 넘어와서도 기본기가 탄탄하다. 비치핸드볼의 저변이 조금 더 넓어진다면 메달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으로도 성장이 가능하다.

Q. 앞으로 선수들의 국제대회 경험을 쌓게 해줄 계획이 있는지?

2020년도에 대표팀 선발을 시도했던 게 중국에서 열린 비치 아시안게임 참가를 노린 것이었다. 그러나 코로나로 연기됐다. 그게 내년엔 열린다. 그걸 목표로 하고 있다. 비치 아시아선수권도 있어서 거기에도 대표팀 파견을 해서 좋은 경기를 하는 것이 목표다. 한국의 비치핸드볼 시작 소식을 듣고 아시아 타 국가에서 경계를 하기도 한다. 한국이 워낙 핸드볼을 잘하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Q. 마지막으로 응원하고 도와주신 분들에게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협회와 TF 구성원들에게 정말 고맙다. 다들 준비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도 싫은 소리 한 번 하지 않았다. 선수들에게도 정말 고맙다. 지금은 사실 비시즌 휴가기간이다. 그런데도 소집에 응해주고 훈련도 열심히 해줬다. 국제대회에도 꼭 같이 가고 싶다. 비치핸드볼은 실제로 보면 정말 재밌고 화려한 종목이다. 많이 찾아와서 응원해주셨으면 좋겠다.

선수 인터뷰

한국 A팀 주장 조선대 정근영



Q. 필리핀과의 경기 소감을 들려 달라.

준비를 오래 하진 못했지만, 그런 것치고는 열심히 준비하면서 늘어나는 느낌을 받았다. 재밌었다.

Q. 핸드볼과 다른 비치핸드볼의 특징 중 하나는?

경기가 야외에서 열린다는 것이다. 야외 경기의 장단점이 있다면?

아무래도 경기를 밖에서 하다 보니 날씨 변수가 좀 있을 수는 있다. 다만 진행요원 분들께서 물도 계속 뿌려주시고 휴도 계속 갈아주셔서 경기에 어려움은 없었다. 굳이 문제라면 햇빛이 너무 뜨거워서 좀 피부가 따갑다. 그 외에는 괜찮다.

Q. 비치핸드볼의 또 하나의 특색인 2점 플레이에 대한 소개를 간략히 해달라.

360도 회전 슈팅이 가장 대표적인 2점 획득 방법이다. 제자리에서 돌면서 슈팅을 해서 들어가면 2점 플레이가 된다. 다른 색 유니폼을 입는 스페셜 플레이어가 득점을 해도 2점을 준다.

Q. 이번 대회를 치르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무엇보다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어 즐거웠다. 앞으로 좀 더 경험을 많이 쌓아보고 싶고, 더 많은 경기를 해보고 싶다. 협회에서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일정 잡아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열심히 노력해서 보답하겠다.

선수 인터뷰

한국 B팀 주장 한국체대 연상진



Q. 대회 소감을 들려 달라.

호흡 맞춘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처음 해보는 공식 경기였지만 앞으로 더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1달 정도 준비 더하면 우승도 가능할 것 같다.

Q. 비치핸드볼 연습 진행은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맨 처음에는 체육관에서 점프 연습 위주로 기본기를 익혔다. 이후 양양으로 와서 터닝과 다이빙 연습 등을 했다.

Q. 앞으로 비치핸드볼 선수로서 해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아시아 국제대회에 출전해보고 싶다.

Q. 마지막으로 응원해주는 분들에게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비록 아직은 생소한 종목이지만 많은 관심 가져주신다면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다. 더 멋진 경기 보여드리겠다. 🌍





“핸드볼, 제대로 즐겨볼까요?” KHF핸드볼클럽이 꿈꾸는 밝은 미래

KHF핸드볼클럽(전 핸드볼학교, 이하 KHF클럽)은 핸드볼 저변을 확대하자는 취지로 핸드볼협회가 직접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2015년 첫 문을 열었다. 핸드볼 생활체육 저변이 좁은 현 실정상, 일반인들이 핸드볼을 배우고 즐길 수 있는 곳은 사실상 KHF클럽이 유일하다. 해가 지날수록 클럽의 인기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KHF핸드볼클럽의 수강 경쟁률은 대학가 수강신청을 방불케 할 정도다. 조금이라도 늦으면 마감되기 일쑤다. KHF클럽을 지도하는 장리라 교장은 “이제는 입소문을 타 주변에서 추천을 해주거나 알아서 신청해 주시는 분들이 많다. 수강신청은 전쟁”이라고 웃었다. 강사진의 면면도 화려하다. 한현숙(1988 서울 올림픽 금메달, 1992 바르셀로나 올림픽 금메달), 장리라(1992), 박정림(1992, 1996 애틀랜타 올림픽 은메달), 김정미(1996), 최임정(2004 아테네올림픽 은메달, 2008 베이징 올림픽 동메달), 명복희(2004) 등 여자 핸드볼 레전드들이 강사로 참여한다. 은퇴한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에게는 재능기부의 기회를, 일반인들에게는 직접 배울 기회의 장이 되고 있다. 강사진 역시 저마다 한국 핸드볼의 꺾음을 책임지고 있다는 사명감으로 열심이다. 이렇듯 스포츠클럽의 선구자 역할을 하는 KHF클럽이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지만 이들의 존재가 있기에 한국 핸드볼은 지금보다 더 밝은 미래를 꿈꾼다.

글. 서호민 기자 사진. 김경태 기자

맨땅에 헤딩하는 심정으로

모든 일이 그렇듯 시행착오가 뒤따르게 마련이다. 초창기에는 맨땅에 헤딩하듯 하나하나 만들어갔다. KHF클럽이 첫발을 댄 2015년부터 강사, 교감, 교장직을 역임하며 8년째 핸드볼 보급에 힘쓰고 있는 장리라 교장은 “2015년, 핸드볼학교라는 이름으로 처음 클럽을 시작했을 때는 갖춰진 게 아무 것도 없었기 때문에 맨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다. 홍보도 저희가 전단지 만들어 한강에 나가서 직접 발품을 팔기도 했다. 가장 큰 목표는 핸드볼 저변확대였다. 올림픽 때만 반짝 인기를 얻는 핸드볼을 대중에게 알리고 싶었다. 그런데 의외로 반응이 괜찮았다. 국가대표 출신이라는 간판을 달고 나온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다. 그렇게 입소문을 타고 해를 거듭할수록 수강생이 점점 늘어났다”고 시작을 돌아봤다.

수업은 매년 상하반기로 각 15회 토요일, 일요일에 진행된다. 유치부 2개반, 초등부 2개반, 초등 클럽선수반, 중등부 1개반, 성인부 2개반이며 한 클래스당 50명씩 모집해 국가대표출신 강사를 담임으로 배치해 운영한다. 주말에 수업이 진행되다 보니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

내야 할 강사진은 주말을 반납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또 한이제는 일상 같은 일이 됐다.

장 교장은 “올해까지 8년째 클럽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 포함 여기서 일하는 선생님들은 주말이 없다. 이제는 주말에 일하는 게 적응이 돼서 그런지 선생님들도 주말에는 당연히 체육관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간혹 경조사 등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때는 수업에서 빠지기도 하는데 그 이외에는 선생님들이 매주 토요일, 일요일은 빠짐없이 체육관을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또, 성인부는 남자에 비해 여자 수강생이 훨씬 더 많다고 한다. 그 이유를 묻자 “성인반은 완전히 여인천하다. 최근 들어 김은아 선수가 노는 언니 등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덕분에 여자핸드볼이 대중들에게 알려질 수 있었다. 우리 클럽에서도 김은아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는 것 같다(웃음). 클럽 뿐만 아니라 핸드볼 정기전 등 여자대표팀 경기가 열리는 현장을 가보면 선수들을 보기 위한 팬들로 북새통이다. 아 우리 핸드볼에도 이런 날이 오는 구나라는 것을 새삼 느끼기도 하는데, 반대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을까 고민이 된다”라고 했다.

물론 지금에 이르기까지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히기도 했다. 지난



2019년까지만 해도 순항하던 KHF 클럽은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다. 장 교장은 “2019년도에는 한 클래스당 수강 인원이 최대 100명까지 육박했다. 한 반에 학생 수가 넘치다 보니 그 때 어쩔수 없이 반을 나누게 됐다. 그런데 2년 전, 코로나19가 터졌고 모든 게 올스톱 됐다. 우리에게도 공백기가 있었다. 다행히 코로나19 확산세가 가라앉으면서 수업이 재개됐지만 확실히 한창 학생이 많았을 2019년에 비하면 줄어든 상태다. 이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내년에는 구성원들과 인원을 더 모집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KHF에서는 무얼 배우나

<핸드볼코리아>가 취재를 위해 찾아간 9월 22일에 KHF 클럽은 초등부 학생들의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초등부의 경우, 클럽 선수반이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초등부가 핸드볼 전반에 대한 기초와 기본기를 배우는 기초반이라면, 초등 클럽 선수반은 핸드볼을 전문적으로 배우기 위한 심화반 개념이라고 보면 된다. 장 교장은 “우리 KHF 클럽은 핸드볼 인재 발굴에도 목표를 두고 있다. 클럽 선수반은 주로 핸드볼에 더 큰 흥미를 느껴 전문적으로 배우길 원하는 학생들로 이뤄져 있고 그 중에서는 실력을 인정 받아 엘리트 선수의 길로 들어서는 이들도 있다. 지금까지 그런 케이스가 딱 1명 있었다. 아무래도 수업 프로그램도 기초반에 비하면 조금 더 깊게 들어간다. 수업도 주 2회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클럽반 수업을 들으면 엘리트 선수들과 경기를 뛸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엘리트 선수들이 참가하는 공식 대회에 참가한다. 다른 종목에서는 쉽게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실제 KHF클럽 선수반은 지난 해부터 태백산기를 비롯한 굵직굵직한 대회에도 참가하고 있다. 지난 해 7월, 태백산기 전국핸드볼선수권

대회, 초등부 예선 마지막 경기에서는 광명남초에 16-9 값진 승리를 거두기도 했다. 장 교장은 “시합도 나가고, 대회도 나가고 성취감이 있다. 아마 클럽 선수가 엘리트 대회에 나가는 건 핸드볼이 처음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국가대표 출신 타이틀을 앞세운 KHF의 교육 목표는 명확했다. 수강생들에게 핸드볼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는 장 교장은 “아무래도 어린 학생들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어려운 기술을 가르치기보다는 먼저 핸드볼 공과 친해지고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짰다. 처음에는 공을 무서워하는 아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최대한 공과 친해질 수 있는 드리블이나 놀이 등을 연구하며 아이들이 공에 대한 공포를 잊고, 핸드볼에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쪽으로 교육 방향을 정했다. 실제로 처음 수업 시작할 때 공이 무서워서 제대로 만져보지도 못한 한 아이도 6개월, 1년이 지나고 대회에도 출전하면서 공에 대한 두려움을 완전히 떨쳐내고 핸드볼과 엄청 친해지게 됐다”라며 교육 과정을 설명했다.

특히, 핸드볼을 처음 접하는 아이들에게는 놀이로 인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장 교장은 “1시간 30분동안 이뤄지는 교육 시간동안 아이들이 흥미를 잃지 않도록 포커스를 두고 있다. 처음에는 힘들어하던 학생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들과 땀 흘리고, 핸드볼에 흥미를 느끼는 등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에 저 역시 많은 것을 느끼고 있다. 처음 저도 클럽을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아이들과의 소통에 애를 먹었지만 지금은 아이들을 통해 저 역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장 교장은 이들이 장차 건실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하기를 희망하길 바라는 차원에서 인성과 예의, 책임감을 핸드볼 코트에서 배우게 해주고 싶다고 했다. 지금은 많은 아이들과 부모님들



사이에 KHF클럽에 가면 핸드볼 외에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입소문이 났다고 한다. 그래서였을까? KHF클럽을 방문했을 때 운동하는 아이들의 눈빛은 여느 프로선수 못지않게 진지했고, 깎듯이 예의를 갖춰 훈련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지금 코트에 있는 아이들도 장차 미래를 이끌어갈 사회 구성원들이다. 운동을 통해 예의 범절을 배울 수 있다. 실제 여기에서 배우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 처음에는 우후죽순으로 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에게서 ‘배려심’이 생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시합을 하더라도 내가 한번 공 만졌으니까 다른 곳에도 패스를 줘야 한다는 마인드가 깔려 있다. 물론 이러한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한 강사들의 역할도 중요하다. 강사진에게도 아이들 이름 부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칭찬하며 동기부여를 심어달라고 주문하고 있다. 이름, 호칭의 경우에도 아이들도 듣는 입장에서 ‘야, 야’ 이렇게 불리는 것보다 ‘누구누구 야’라며 자기 이름이 불리는 게 훨씬 덜 기분 나쁠 수 있다. 이렇듯 근시안적인 재미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핸드볼을 통해 많은 걸 알려주고 싶었다.” 장리라 부회장의 말이다.

그러면서 “핸드볼은 모든 운동의 집합체다. 몸싸움, 패스, 점프슛, 허슬 등 여러 가지 플레이를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핸드볼을 잘하면

농구도 잘하고 축구도 잘할 수 있다. 모든 운동의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달리고 던지고 슛을 때리며 핸드볼 특유의 다이내믹함과 짜릿함을 느낄 수 있기에 성장하는 아이들이 즐기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핸드볼의 매력을 이야기했다.

1명이라도 더 핸드볼 좋아하는 수강생이 생겼으면

장 교장은 4년 전, KHF클럽 강사진과 함께 백령도에 다녀온 일화를 들려줬다. 그는 “4년 전, 대한체육회 사업으로 백령도의 한 초등학교에 찾아가 핸드볼을 가르친 적이 있었다. 아이들이 정말 너무나 즐거워했고, 저희 강사진에게도 너무나 뜻 깊은 경험이 됐다. 시간이 너무 짧고 단기간이라 아쉬웠던 기억이 난다. 개인적으로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직까지 서울,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선 일반인들이 핸드볼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이나 여건이 턱없이 부족하다. 학교의 경우에도 스포츠클럽이 활성화 되고 있지만 핸드볼 전문 지도자가 각 학교에 없어서 핸드볼 수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협회 차원에서도 지금 생활체육 쪽으로 핸드볼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방 같이 핸드볼을 쉽게 접할 수 없는 볼모지를 찾아가 핸드볼을 알리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한다. 아마 머지 않아 또 이런 기회가 올거라고 본다”라고 바람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핸드볼 저변확대가 되길 바란다는 말을 한 장 교장은 “어쨌든 예전보다 핸드볼 인기가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를 포함한 강사진도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핸드볼을 좋아하는 이들이 1명이라도 더 늘어날 수 있게끔 발로 뛸 생각이다. 앞서 말했던 인재 육성에도 조금 더 신경을 써야하지 않을까 싶다. 저희 클럽반을 통해서 유명한 선수가 탄생한다면 그것 또한 엄청난 보람된 일이 될 것이다. 우리 수강생들이 어떻게 하면 핸드볼을 더 즐길 수 있을까 강사진과 방법을 연구하고 도움을 주는 것이 소명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수강생들과 땀 흘리고 최선을 다하겠다”며 인터뷰를 마쳤다. 🌍

KHF클럽에서 핸드볼을 배우고 싶다면?

매년 상·하반기로 각 15회 토요일, 일요일 주말제 수업으로 운영된다. 유치부 2개반, 초등부 2개반, 초등 클럽선수반, 중고등부 1개반, 성인부 2개(성인 입문, 동호회)반이며 한 클래스당 20명을 모집해 국가대표출신 강사를 담임으로 배치해 운영한다. 보통 유치부->초등부, 초등부->중고등부, 고등부->성인부 졸업제로 운영된다. 성인부의 경우, 본인들이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되, 필요 시 강사진이 보충수업, 조연, 격려하는 체제로 진행되고 있다. KHF클럽에서 핸드볼을 배우려면 상·하반기 등록 시기(상반기 1월, 하반기 7월)에 핸드볼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등록하면 된다.





대한핸드볼협회, 홈페이지 전면 개편...

프로화 앞두고 협회·리그 분리 운영

대한핸드볼협회가 2023년 프로화를 앞두고 홈페이지를 새롭게 단장했다. 대한핸드볼협회는 홈페이지를 사용자 디스플레이 종류에 따라 화면의 크기가 자동으로 최적화 되는 반응형 웹사이트로 개편했다. 이로써 핸드볼 팬들은 별도의 앱 다운로드 접속 없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원하는 정보를 찾아볼 수 있게 됐다.

또 기존 협회 홈페이지와는 별도로 핸드볼코리아리그 홈페이지도 새롭게 선보였다.

리그 홈페이지에는 리그 일정과 소식, 경기 기록, 구단정보 및 선수 현황 등을 전면 배치해 핸드볼 팬들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대한핸드볼협회는 개편된 홈페이지를 통해 핸드볼 팬들과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마련할 계획이다.



U-18 여자 대표팀, 8월 MBN 여성스포츠대상 수상

세계선수권을 제패한 18세 이하(U-18) 한국여자핸드볼 대표팀이 MBN 여성스포츠대상 8월 최우수선수(MVP)에 선정됐다. U-18 여자 대표팀의 김진순 감독과 김민서는 9월 5일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월간 시상식에 참석해 상패와 상금을 받았다. 8월 MVP에는 U-18 한국여자핸드볼 대표팀과 함께 한국여자프로골프 투어에서 활약하는 이소영도 공동 선정됐다. U-18 핸드볼 대표팀은 8월 북마케도니아에서 열린 세계선수권을 제패, 비유럽 국가 최초로 이 대회 정상에 올랐다. 2012년 제정된 MBN 여성스포츠대상은 여성 스포츠 활성화와 여성 스포츠인의 발전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매월 국내 여성 스포츠를 빛낸 선수들을 월간 MVP로 선정한다.



2023년 여자실업핸드볼 신인드래프트 개최

대한핸드볼협회가 주관하는 2023년 여자실업핸드볼 신인드래프트가 10월 27일 오후 2시부터 서울 리베라호텔 베르사이유홀에서 개최된다. 이에 앞서 대한핸드볼협회는 2023 여자실업핸드볼 신인드래프트에 참가를 희망하는 고교 및 대학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10월 14일부터 23일까지 참가신청을 받는다.

이번 2023 여자실업핸드볼 신인드래프트는 8개 실업팀이 지명하며, 지명 순서는 현장에서 추첨을 통해 확정된다. 100개의 추첨 공을 지난 시

즌 정규리그 최종 순위에 따라 팀별로 분배해 투입 후 현장에서 뽑힌 순서에 따라 드래프트 지명 순서를 결정하게 된다. 팀별 공 개수는 2021-2022시즌 8위 대구광역시청이 22개, 7위 서울시청 20개, 6위 경남개발공사 17개, 5위 인천광역시청 14개, 4위 SK슈가글라이더즈 11개, 3위 부산시청 8개, 2위 광주도시공사 5개, 1위 삼척시청 3개 순이다. 한편, 대한핸드볼협회는 신인 드래프트가 끝난 후 드래프트 종료 후 선발된 선수 대상으로 2박 3일간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할 예정이다.



SK 슈가글라이더즈, 아시아클럽선수권 6전 전승 우승...

세계 클럽대회 출전 자격 획득

SK 슈가글라이더즈가 10월 1일부터 9일까지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열리는 제5회 아시아 여자클럽선수권대회에 출전해 우승을 차지하는 쾌거를 누렸다. 아시아핸드볼연맹이 주최, 아시아의 상위 클럽팀이 모여 우승팀을 정하는 본 대회에서 SK 슈가글라이더즈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인도, 이란, 쿠웨이트 등을 상대로 6전 전승의 압도적 성적을 거두며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이로써 SK 슈가글라이더즈는 2023년 세계여자핸드볼 클럽대회(Super Glove) 출전 자격을 얻게 됐다. 아울러 SK 슈가글라이더즈는 아시아 핸드볼 관계자와 각국 선수단이 모이는 이번 대회에서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 활동도 펼쳤다. SK 구단 관계자는 “체육관 내 영문으로 제작된 부산엑스포 유치 응원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선수 유니폼에도 부산엑스포 엠블럼 패치를 부착했다”며 “다른 나라 선수단에도 부산엑스포 영문 홍보 책자를 선물하는 등 아시아연맹 및 각국 관계자, 현지 팬들을 대상으로 2030 부산엑스포 유치 홍보 활동을 진행했다”라고 밝혔다.



선산고·일신여고, 핸드볼코리아 전국중고선수권대회 우승

선산고와 일신여고가 핸드볼코리아 전국중고선수권대회에서 고등부 정상에 올랐다. 선산고는 9월 6일 경북 김천체육관에서 열린 남자 고등부 결승에서 조선대학교부속고를 27-25로 물리쳤다. 선산고는 김정우가 7골, 4도움을 기록했고 배창현은 6골을 넣는 활약을 펼쳤다. 풀리그로 펼쳐진 여고부에서는 일신여고가 5전 전승을 거두며 우승을 차지했다. 남녀 고등부 최우수선수에는 김정우(선산고)와 양처럼(일신여고)이 선정됐다.



이번 핸드볼코리아에서는 핸드볼의 밝은 미래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여자청소년대표팀의 세계선수권 우승, 그리고 남자대표팀의 미래를 책임질 김진영의 다부진 각오, 그리고 외국인 감독 체제의 남녀 대표팀까지 기사 하나하나가 설렘과 희망을 품게 했습니다. 또, 오랜 기간 핸드볼의 뿌리를 키워내다가 지난달 코트와 작별한 이춘삼 감독의 이야기는 참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핸드볼 팬으로서 감사하다, 수고하셨다는 인사 전하고 싶습니다. 바람이 있다면, 세계선수권에서 MVP를 차지한 김민서 선수 인터뷰를 핸드볼코리아에서 보고 싶습니다. 경기를 보면서 김은아 선수가 떠올랐는데요. 한국 여자핸드볼의 에이스가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김현화>

독자의견을 보내주세요!

핸드볼코리아 9·10월호(vol. 60)에 대한 의견을
 10월 31일까지 이메일(77basket@daum.net)로 보내주세요.
 채택된 분에게는 핸드볼 굿즈를 보내드립니다.
 ※ 경품수령을 위해 주소와 전화번호를 반드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World EXPO 2030
BUSAN, KOREA

WORLD

EXP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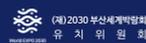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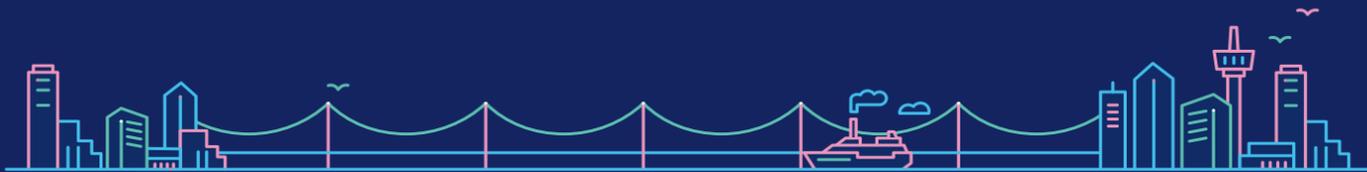
2030

BUSAN, KOREA

대한민국 첫번째 월드엑스포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대한핸드볼협회가 함께 뛰겠습니다

2023년 12월 개최도시 결정



molten®
For the real game

IHF OFFICIAL GAME BALL



[Size3] H3X5001-BW [Size2] H2X5001-BW
Synthetic Leather / Hand Stitched / Latex Bladder

한국 수입, 판매원
☎믹스스포츠
070-4367-1482



FILA